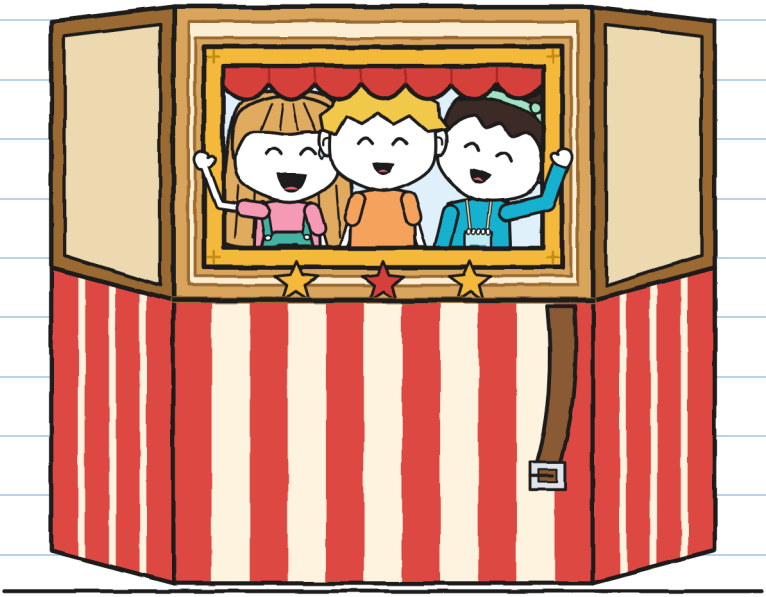
불가능 배달 · 6

자리 하나, 우리 셋

LinguAula



(구니의 공책)

사이즈 S
초급 · 구+

불가능 배달 · 6
자리 하나, 우리 셋

글과 그림: LinguAula

사이즈 S · 초급 · 7+

한국어판: LinguAula

초판: 2026

© 2026 LinguAula · info@linguau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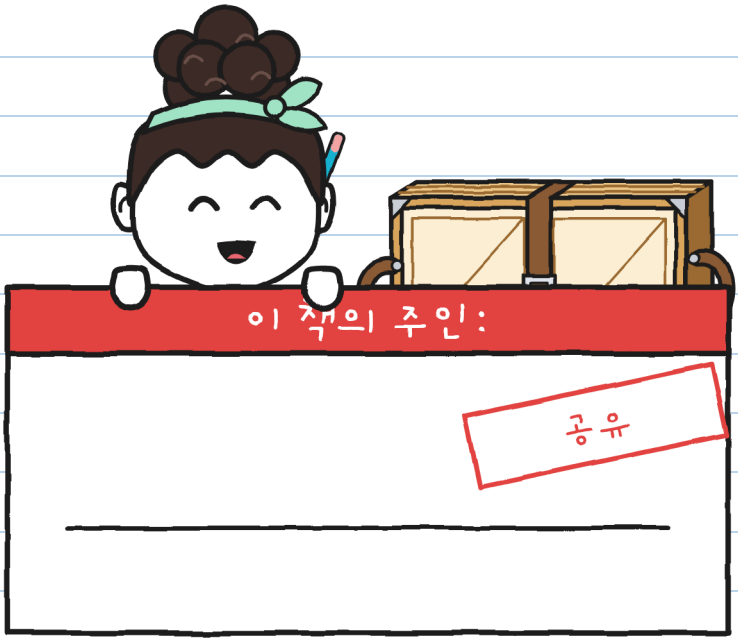
교실에서도 집에서도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여섯 번째 책. 앞선 책: '이 택배는 문다',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마시오', '반송해 주세요', '여기선 안 돼, 부스러기!', '케이크 하나, 우리 둘'

LinguAula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셋이서 든다. 손잡이는 골랐어. —J.



공유. 다 들어가. —J.

이걸 주웠다면 접어서 돌려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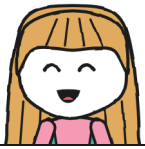
이야기 속에서만

이 도장은 이야기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표시해. 진짜 용은 없어.
택배는 날아서 돌아오지 않아. 진짜로 옮길 때는 76쪽을 봐. —J.

등장인물



구니. 센티미터로 잰다. 이번 주에는 다른 것도 센다.



훌리타. 길을 안다. 그걸 설명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노아. 훌리타의 오랜 친구. 걸음으로 잰다. 걸음을 늘 신고 다닌다.



이레네. 연극 공방을 맡고 있다. 어디로 가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멈춰'라고 말한다.



토뇨. 번개배송, 그리고 가게. 시간을 재고 의견은 없다. 거의.



마라. 택배를 빌려준다. 상자는 놓지 않는다.



6번 택배. 상자에 들어가는 극장. 벨트를 잡아 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펼쳐진다.



R. 보내는 사람. 이번에는 물품 목록에 한 줄을 남겼다.

배달 공책 6
주인 : 구니

공유.



공책 5는 시계 속 바늘 두 개로 끝났다. 이번 공책은 귤처럼 주황색이다. 가게 도장도 찍혀 있다.

첫 쪽에는 단어를 하나 썼다. 혹시 몰라 반 쪽을 비워 두었다. 그 자리는 1분도 비어 있지 못했다.

나는 첫 쪽을 내 글씨로 공유했어. —J.

제1장

왜 셋이 필요할까?

월요일에 학교가 끝났다. 훌리타가 계산대에서 봉투를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초록색도 파란색도 아니었다. 청록색이었고, 단혀 있었다.

"집배원 아저씨가 가져왔어. '불가능 배달 가게 앞'이라고 쓰여 있어. 안 열고 있은 지 좀 됐어."
"얼마나?"
"28분." 토요가 자기 상자에서 시계를 보며 말했다.
"동네 신기록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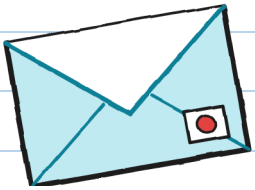


내 꺼 아니었어. 내 꺼 아닌 봉투는 세 배 무거워. —J.

마라아줌마가 손톱 하나로 봉투를 열었다.

저는 주민센터 연극 공방을 맡고 있는 이레네입니다.
물품 목록을 정리하다가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접이식 미니 극장: 미수령'
혹시 그쪽에 있나요?
3개월 토요일은 동네 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접힌 미니 극장이 저희 마당에 도착하고,
세 사람으로 된 한 팀이 올려 왔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서명하겠습니다.
노아 팀에는 셋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아직은 노아 혼자뿐입니다.

훌리타: 나야! 나 이제 연극 해.
택배 잘 아는 누군가를 데려와. —노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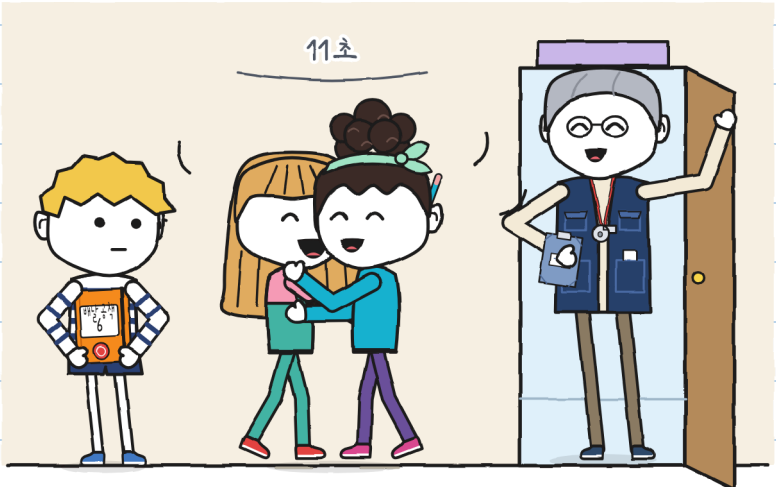


'택배 잘 아는 누군가'. 그게 나였다. '택배'는 마음에 들었다. '누군가'는 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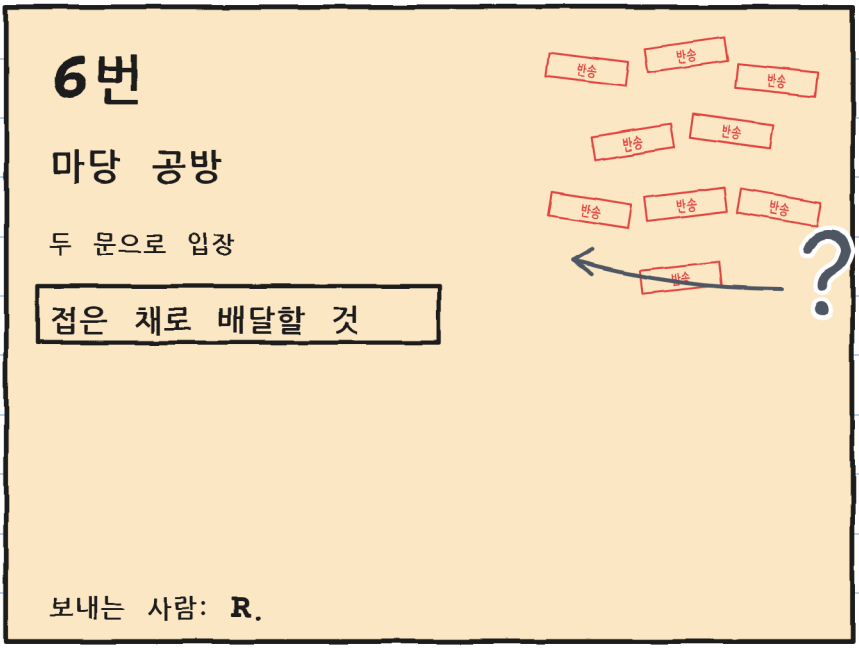
5시에 이레네 선생님과 노아가 왔다. 이레네 선생님은 서류철과 주머니 많은 조끼를 가지고 있었고, 목에는 호루라기가 있었다. 노아는 수첩을 매달고 있었고, 귀 뒤에는 청록색 연필이 있었다.

훌리타와 노아는 오래 껴안고 있었다. 나는 시간을 잴 수 있었다. 11초. 나는 공책을 들고 한쪽에 서 있었다. 공책은 이럴 때도 쓸모가 있다. 손에 들 게 생기니까.

"얘는 구니야." 훌리타가 말했다. "택배를 잘 알아."
"안녕, 택배 잘 아는 구니." 노아가 말했다. 그러고는 수첩에 내 이름을 적었다.



마라 아줌마는 의자에 올라가 선반에서 6번 택배를 내렸다. 다른 것과 똑같은 상자였다.



"도장이 아홉 개." 훌리타가 말했다.
"'두 문으로 입장'이래." 노아가 읽었다. "무슨 두 문이지?"

이레네 선생님은 몰랐다. 마라 아줌마도 몰랐다. 나는 물음표를 붙여 적어 두었다.

"아홉 번 갖다줬어요."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월요일에는 바느질 모임이, 수요일에는 합창단이, 금요일에는 체스 모임이 문을 열었죠. '공방이요? 여기 아니에요.' 공방 이름으로 서명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연극은 마당에서 연습해요." 이레네 선생님이 말했다. "거기엔 초인종이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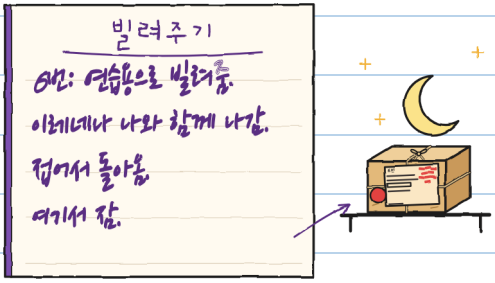
이레네 선생님은 서류철을 열어 마라 아줌마에게 도장이 찍힌 종이를 보여 주었다.

"이제 공방이 기록부에 있어요. '연극 공방. 담당: 이레네.' 서명해 줄 사람이 이제 있어요."



"이제 서명해 줄 사람이 있으니까, 마라 아줌마가 상자에 담아 가져다주면 안 돼요?" 훌리타가 물었다.
"내 상자에 담아 벌써 아홉 번 가져갔지. 이제는 받는 사람이 조건을 정해."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접이식 미니 극장은 광장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레네 선생님이 말했다. "우리 아이들이 길에서 들 수 있어야 해요. 못 들면 저한테는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쓸모없는 건 서명 안 해요."

"그 말은 빵집에서 들었어요."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마라 아줌마는 조건을 자기 책에 적었다. 라벨은 상자에 그대로 둔다. 상자는 마라 아줌마가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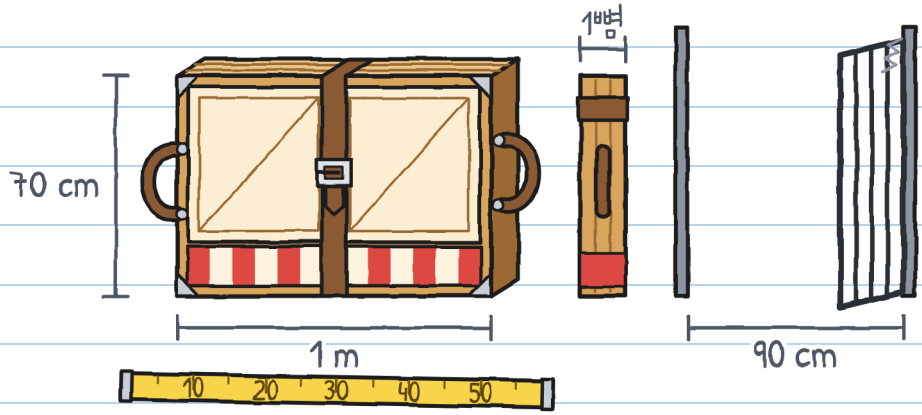


선반에서 자면, 해 뜰 때 돌아올 곳이 없어. 아직 도장 아홉 개야.
내가 물어봤어. —J.

화요일에 우리는 주민센터 마당에 갔다. 인도에서
들어가는 곳에 철문이 있다. 저절로 닫힌다.

마라 아줌마가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다.
미니 극장이 나와서 쑥 커졌다. 엘리아 아줌마의
받침대처럼. 나는 이제 놀라지 않는다. 줄자를 꺼낸다.

6번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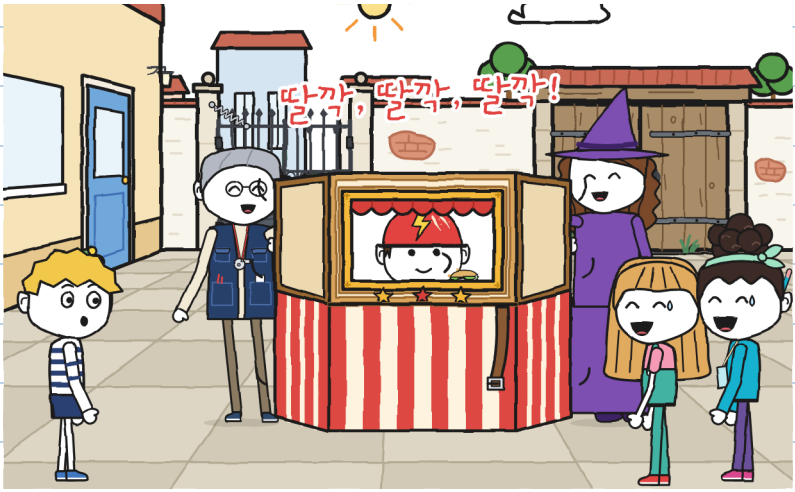


옆으로 세우면 철문으로 들어갔다. 그건
쉬운 부분이었다.

이레네 선생님은 빠진 곳이 없는지 보고 싶어 했다. 벨트를 풀고 꾸러미를 돌렸다. 판들이 무게 때문에 저절로 펼쳐졌다. 딸깍, 딸깍, 딸깍. 벽이 세 면인 무대였다. 짧은 막이 있고, 뒤쪽에는 틀이 달린 창이 있었다.

창으로 토뇨가 보였다. 샌드위치를 들고 지나가고 있었다. 입에 음식이 가득해서 인사를 못 했다.

"온전하네." 이레네 선생님이 말했다. "공방 규칙이야. 손은 손잡이에. 경첩에는 절대 안 돼. 그리고 돌 때마다 누군가 벨트를 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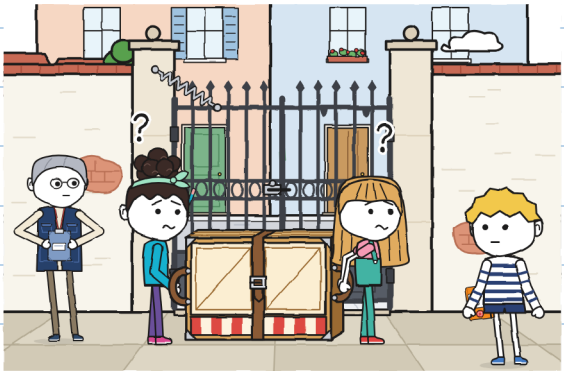
이레네 선생님과 마라 아줌마가 미니 극장을 접고 벨트를 채웠다.

"저희가 해 볼게요." 훌리타가 말했다. 노아는 벌써 다른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둘은 셋까지 세고 들어 올렸다. 들 수 있었다. 마당을 한 바퀴 돌았다. 철문에 도착했다. 문은 닫혀 있었다.

훌리타가 철문을 쳐다보았다. 노아도 쳐다보았다. 손은 네 개였는데 네 개 다 차 있었다.

나는 2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두 손은 비어 있고, 공책이 하나 있었다.



나는 등으로 철문을 붙잡았다. 둘이 지나갔다. 이레네 선생님이 서류철에 뭔가를 적었다.

그날 오후 나는 이 공책의 장치를 발명했다.

셋 측정기

구간마다 누가 무엇을 맡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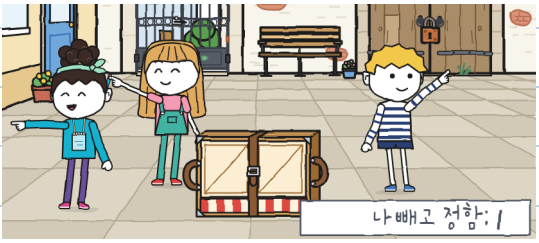
	들기 	안내 	길 열기 
마당, 첫 번째 시도	훌리타와 노아	훌리타와 노아	
마당, 두 번째 시도	훌리타와 노아	훌리타와 노아	구니

이름 두 개가 겹치고 칸 하나가 비어 있으면 통과 못 한다. 칸 셋이 다 차 있으면 통과한다.

그리고 더 작은 것을 하나 더 적었다. '철문은 돌멩이도 붙잡아 준다'.

라벨을 이해하는 일이 남아 있었다.
"두 문은 철문의 문짝 두 개야." 훌리타가 말했다.
"둘 다 열어야 해." 노아가 말했다.
"먼저 담장을 재 볼 수 있어." 내가 말했다.
우리 셋은 가리켰다. 훌리타는 철문을. 노아는
연습실을. 나는 길을.
"나중에." 둘이 말했다.

나 혼자 갔다. 담장 뒤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돌아오니 둘은 내가 없던 때의 일로 웃고 있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
"이미 정해졌어, 구니." 훌리타가 말했다. "문짝
두 개야."
나는 입을 다물었다. 공책도 덮었다.



그 작대기는 이틀 뒤에 봤어. 내 거였어. —J.

한 이야기, 여섯 가지 사이즈

사이즈는 여섯 가지다. 3세부터 16세까지, 언어는 20개가 넘는다. XXS, XS, S, M, L은 쪽수와 그림이 같다. XL은 소설이다. 이야기하는 방식만 다르다.

사이즈 XXS · PRE-A1
구니는 단어를 하나 쓰고 자리를 남겨 뒀어. '공유'라는 단어가 보여?

사이즈 XS · A1
단어를 하나 썼다. 반 쪽은 비워 두었다. 그 자리는 1분도 비어 있지 못했다.

사이즈 S · A2
첫 쪽에는 단어를 하나 썼다. 혹시 몰라 반 쪽을 비워 두었다. 그 자리는 1분도 비어 있지 못했다.

사이즈 M · B1
첫 쪽에는 단어를 딱 하나 썼다. 혹시 몰라 반 쪽을 비워 두었다. 그 자리는 1분도 비어 있지 못했다.

사이즈 L · B2
첫 쪽에는 단어를 딱 하나 쓰고, 혹시 몰라 반 쪽을 비워 두었다. 그 자리는 1분도 비어 있지 못했다.

사이즈 XL · B2-C1
삽화 소설 · 13+
CEFR 수준은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각자 자기 사이즈로. 미니 국장은 같아. —J.



가족과 교사를 위한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